

火病에 對한 東醫學的 考察

金 珍 泰*

I. 緒 論

火病이란 單語는 現代 精神醫學界에서 쓰는 公式的 疾患名은 아니나 우리나라 民間 社會에서 오래전부터 使用되고 있는 매우 獨特한 概念이다. 특히 같은 漢字文化圈인 일본이나 중국의 臨床精神界에서도 이 用語는 發見되지 않으며, 東醫學에서도 神病과 火病을 同一視 하지는 않았는데 唯獨 한국 사람들만이 만들어낸 疾患名이란 것을 알 수 있다. (15,17,18,19,22,23,24,25,26)

火病的 誘發因子들이 心理的인 것으로 주로 家族內의 問題로 婦人들의 경우, 男便· 媳宅식구, 子女들의 속씩임 등으로 야기된 抑壓된 忿怒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死別· 財產의 損失, 가난과 生活苦 등인데 이는 情緒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는 사람과의 疎通의 잘 안됨과 그들과의 關係에서 感情 處理가 잘 안되어서 생기는 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17,18,19,22,26)

火病的 發生原因이 心因性이란 것은 精神을 肉體보다 優先하며 全一生命觀을 特徵으로 하는 東洋文化圈에서 形成된 疾患名으로 相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心を

優先하는 思考는 實驗的 合理의 方法에 의해 感情의 病因論的 重要性을 發見한 西洋醫學에 비해 數千年을 앞지른 優秀點으로 評價되며 近來 西洋醫學에서 心身醫學이라 해서 東醫學의 全一生命觀에 接近해와 心因性疾患을 重視하고 있는 것을 볼때, 精神醫學界에 있어서도 文化·傳統·思考를 念頭에 둔 한국인의 精神醫學의 定立이 絕對的으로 必要로 하는 때이다. (15,23,24,26)

이에 著者は 東洋文化에서 나온 火의 概念이 民間에서 쓰고 있는 火病과는 조금 다르게 使用된 用語이긴 하나, 우리 民族 特有的 文化的 바탕위에서 自生된 言語이므로 研究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東醫學에서의 火 卽歷代醫家說, 火水藏器로서의 心과 腎, 五行中の 火, 病因中 六淫中の 火·病理的 現象으로서의 火·六氣로서의 火 等에 對해서 調查해 보아 東醫學에서의 火와 火病과의 相關性和 相異點을 찾아 보도록 하였다.

II. 本 論

1. 歷代醫家說

內經에서는 水爲陰火爲陽, 水火者 陰陽之

* 東國大學校 大學院

兆徵也, 南方生熱 熱生化라 하여 陰陽五行論의 面에서, 火의 概念을 說明하고 있으며, 內經의 理論中 重要한 것은 人體의 生理, 病理的인 面에서 說明되어지는 陰陽應象大論의 壯火之氣襄,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의 理論이다. 壯火 少火에 對해서는 醫論이 많은데 王冰은 壯火를 病理的인 火로서, 少火를 生理的인 火로 認識하고 있어, 壯火와 少火의 表現으로 火를 病理的·生理的 側面에서 說明하고 있다.^{21,25,27,29)}

內經說에서 또 한가지 理論은 天元紀大論의 “君火以展 相火以位” 至眞要大論의 “少陽司天 其化爲火” 等の 運氣의 面의 火의 理論이 나오나, 과연 이 運氣的인 面의 火를 內經의 理論으로 봐야 할지는 앞으로 더 研究의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火가 六氣中 二之氣로서 風氣라 暑氣問의 氣運으로 暑와 함께 君火 相火로 表現되었으며 人體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힘으로써 人體에 比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相火와 君火라는 文句의 出現에 意味가 있다 하겠다.

王冰은 註에서 人火와 龍火의 問題를 提示하여 火熱病의 微少한 것은 人火라 稱하고, 病의 太甚한 것을 龍火라 稱해 卽 實火를 人火로 稱하고, 虛火를 龍火로 表現함으로서 病理的인 面의 火의 虛實을 論했다.²⁷⁾

宋代에는 許叔微와 嚴用和의 腎에 眞火가 있다는 問題가 提起되었는데 許叔微는 腎에 眞火 眞元이 있어서 補脾를 爲해선 腎을 補해야 한다는 常須暖補腎氣의 腎爲主의 脾腎關係를 세웠으며, 嚴用和는 補脾不如補腎을

主張하고 眞陽을 論했다.

이렇게 宋代의 火의 概念은 腎에 眞元이나 眞火가 있다고 했으며 이들이 곧 消化力의 動力이 된다고 보아 厚에 心腎不交說의 基礎가 되었다.²¹⁾

全元時代의 한의학의 理論體系確立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 時期로서 劉河間, 李東垣, 朱震亨, 張從政 等 四大家가 出現하였다. 劉河間은 六氣가 일어키는 증후 81種中 約2/3에 해당하는 56種이 火熱로 因해 發生한다 하여 主火論을 提唱하고, 六氣中 火와 熱이 가장 重要한 致病素因이 된다고 했다.

또 亢害承制論을 發展시켰는데, 이는 實火의 概念으로 防風通聖散涼膈散 等の 方劑를 多用했는 바, 이것으로 보아 劉는 現代의 急性疾患이나 炎症等과 같이 過度하게 亢進되는 狀態를 나타내는 많은 取扱하였음을 推理할 수 있다.

李東垣은 各種疾病의 發生이 體內正氣의 損傷이 主要原因이 된다고 했으며, 內傷病의 病理機轉은 元氣와 陰火의 關係失調와 弁降失常의 面으로 說明하고, 病理的인 面으로서 陰火의 概念을 提示했는데 이는 虛火로 볼 수 있다. 그래서 治方도 補中益氣湯 等の 補脾胃藥材를 多用했다.^{21,31)}

朱震亨은 陽動陰靜의 論理로서 動하는 것이 理論을 提起했는데

格致余論에서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風動皆屬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于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

이라하여 人體內에 本來 燃燒될만한 火가 없으나 生理的變化나 혹 病理的 變化時에

모두 火의 象徴이 있어 因其動而可見이라 하였다.

또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라 하여 사람의 生命力이 相火一氣의 運動에 根源되는 것이라 했으며 相火는 肝·腎의 二臟이 專司하고, 다시 心包絡·膀胱·三焦·膽의 모든 腑에 分屬된다 했다.

이러한 點에서 丹溪는 人體가 生生不息하는 機能活動을 主觀하게 되는 生理的인 面의 火로서 相火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相火妄動에 의한 病理的인 面의 火로서도 相火를 論하기도 한다.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相履…相火元氣之賊)

陽有余陰不足論에서 天은 火하고 地는 小하니, 陽은 有余하며 陰은 不足하다 하여 사람도 역시 陽有余陰不足이니 人身의 相火는 쉽게 動하게 되고 相火가 妄動하면 陰精이 泄하게 되어서 더욱 陽有余陰不足이 된다고 主張하여 滋陰降火의 治法을 爲主로 하게 되었다.

丹溪는 生理的 病理的 모든 火를 相火로 稱했으며 病理的인 面의 相火는 邪火로 볼 수 있고, 發生原因이 陰이 虛해 發生된다 하였으니, 病理的인 面의 相火는 虛火로 보아진다. 그리해 治法도 滋陰降火를 主唱하게 된 理由라 하겠다. ^{13,21)}

2. 心腎과 水火相濟^{2,5,8,10,11,21)}

心은 上部에 位置해 있으면서 火라는 屬性을 가지고 있어 그 性質이 火陽에 屬하고, 腎은 下部에 位置해 있으면서 水라는 屬性을 가지고 있어 그 性質이 水陰에 屬하

므로 水와 火는 本來가 陰陽의 徵兆인데 升降이라는 것이 陰陽의 運動을 뜻하기 때문에 臟腑의 升降運動은 心과 腎으로써 根本을 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2,15)}

水火升降의 機制가 복잡한 까닭에 이에 관해 多方面으로 論하고 있는 바 一例로서 吳醫匯講에

心本火臟而火中有水 腎本水臟而水中有火
火爲水之主 故心氣曰欲下交

水卽火之源 故腎氣曰欲上交

故有水不升爲病, 調腎之陽 陰氣足 火氣隨之而升

火不降爲病 滋心之陰 陰氣足 火氣隨之而降.

이라고 했으니, 이는 水가 火를 얻어야만 上升할 수 있고, 火가 水를 얻어야만 下降할 수 있다는 것에 對한 설명이다. 火는 마땅히 아래로 내려가고 水는 마땅히 위로 올라가서 兩者가 서로 交會해야만 相濟할 수 있는데, 이런 水升火降의 原則은 臟腑의 生理機能을 正常的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人의 生死를 判가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卽 心火는 반드시 腎으로 下降해 腎陽을 도우며 腎陰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腎水가 不寒하게 되고, 腎水는 心으로 上升하여 心陰을 도우며 心陽을 濡養함으로써 心大가 不亢하게 하니, 이러한 관계를 가르켜 心腎相交 혹은 水火相濟라고 한다.

그러므로 病理上으로는 心火가 不足해지면 아래에 있는 腎陽을 도와주지 못함으로써 腎水가 不化하게 되고, 그러면 위에 있는 心을 遏신여지게 됨에 따라 心悸·水腫

등과 같은 水氣凌心の 證候가 나타나고, 腎水가 不足해지면 위에 있는 心陰을 도와주지 못함으로써 心火가 獨盛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心悸·心煩·失眠·多夢과 같은 心腎不交의 증후 또는 口舌生瘡같은 陰虛火亢證을 볼 수 있다.

3. 五行으로서의 火^{2,4,6,9,10,11)}

東洋哲學은 基本法則을 設定함에 있어서 「陰+陽=太極, 木+火+金+水=陰陽」이라는 公式으로 放納되는 것이며, 또는 「太極=陰+陽」「陰陽=木+火+土+金+水」로서 다시 演繹하기도 한다.¹¹⁾

이 法則은 宇宙間의 모든 變化現象을 探究할 수 있는 大本이기 때문에 哲學, 醫學, 科學 等 모든 原理의 탐구도 여기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五行이란 陰陽이 다시 發展成逐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宇宙의 變化하는 象態는 事實上 陽陰運動인바, 具體的으로 보면 五行運動이고, 抽象的(要約)으로 보면 陰陽運動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陰陽運動論이라고 하기도 하나, 사실은 陰陽論은 五行論의 基幹이고 五行論은 陰陽論의 枝葉인 것이다.

五行의 概念을 研究해보면, 太極이라고 불리우는 統一體가 陰과 陽이라는 2가지 氣運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陰陽은 또 다시 各各 分合作用을 일으킴으로서 5個의 새로운 成質이 發生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五行이라 하고, 宇宙의 運動原質을 木火土金水の 5가지로 命名했다. 木火土金水는 것은 나무나 불과 같은 自然形質自體를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이것을 排除하는 것

도 아니다. 그러므로 五行의 法則은 木火土金水는 單純히 物質만을 代表하는 것도 아니오 또한 象만을 代表하는 것도 아니다.^{10,11)}

五行中 여기서 다루는 것은 火이므로, 火와 참고로 水에 행해서는 論하고자 한다. 木은 生이나 湧出이나 勇力등의 主體로 象徵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集中되어 있는 木의 活動象態를 말한다. 五行運動이란 木火土金水の 順序로 發展하는 萬物의 運動形態인데, 그것을 皮相的으로 보면 萬物이 千變萬化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5단계(木化土金水)運動이다. 木은 그의 最初단계의 運動象態를 말한다.

東方이란 陽(木)이 發하는 基本方位를 稱한다.

人生의 時期는 少年期에 해당한다.¹¹⁾

火라는 것은 分散을 爲主로 하는 氣運이다. 다시말하면 모든 分散作用은 바로 火氣의 性質을 反映하는 거울이다. 宇宙의 모든 變化에는 最初에는 木의 形態로서 出發하지만 그 木氣가 盡하려고 할때에 씩은 가지를 發하게 되는 것인즉 그 기운의 轉換을 가리켜서 火氣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作用을 火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變化作用의 第二단계이다.¹¹⁾

그런데 火氣가 分裂하면서 자라나는 作用은 그 기반을 木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木이 正常的인 發展을 했을 때는 火氣도 또한 正常的으로 發展하게 되겠지만 木의 發展이 非正常的일 경우엔 火도 역시 불균형적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火氣가 發展하는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木火土金水

의 어느 것이 發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火氣가 發展하는 단계에 들어오면 木氣의 특징은 이미 消盡되고 分裂과 長茂라는 새로운 특징과 바뀌지게 된다. 그러므로 木의 때의 特長이던 萬物の 힘이나 充實했던 內容은 外觀적인 秀麗와 空虛한 虛飾으로 바뀌진다. 그러므로 火란 이같이 그 象이나 本質이 木에서 分家한 것에 不置한 것이므로 人生一代서 보면 青年期에 접어드는 때이다. 그러므로 眞勇은 虛勢로 變해가기 시작하고 意慾은 점차 情慾에서 色慾으로 變해가는 때이다.

다시말하면 天然의 形質이 점점 弱화되는 것은 火氣의 때에 이르면 外部의 形과 裏面의 質이 서로 투쟁함에 있어서 外形이 점점 밀치면서 擴張分裂하게 되는 것인즉 이것은 바로 外形이 裏質에게 判定敗를 당하고 마는 形質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하에서 長茂하는 限 內面的인 象態의 弱화하는 反面으로 外面的인 虛飾을 助長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自然界에서 이런 象態를 觀察해보면, 꽃이 지고 가지가 벌어지는 때인 즉 이뎨 萬華方暢한 아름다움은 威勢를 最高度로 뽑내는 때이지만 그 內容은 이미 空虛하기 始作하는 때인 것이다. 이것을 形象의 對立이라 하는데 形과 氣는 언제나 그 세력이 並行하

는 것이 아니고, 서로 消長하면서 外面을 形成한다는 原理를 말한다. 四時로선 夏節이요, 方은 南方에 屬한다. 夏는 外形은 무성하지만 內面은 空虛해지는 때이므로 生長力은 끝나고 老源가 始作된다.

五行性質을 空間的인 面에 比해 말해보면, 上은 火性的 屬이 되고 下는 水性的 屬, 右는 金性, 左는 木性, 中間은 土性的 屬이 된다. 또 그것을 時間的인 面으로 말하면, 春은 木性, 夏는 火性, 秋는 金性, 冬은 水性, 四季(四時的 中間時節)는 土性的 屬이 된다.^{10,11)}

또 五行의 作用으로 말하면, 木은 發散, 火는 上昇, 土는 中和, 金은 收斂, 水는 潤下 貯藏으로 別해 볼 수 있다.

理論을 더 돕기 爲해 附言해 보면

比類取象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木火土金水의 五行을 中心으로 하여 自然界와 人體의 各方面을 그의 屬性에 따라 分類 配列하고 推衍하는 方法을 말하는 데 人間과 自然間의 相應 共通의 規律이 바로 比類取象의 規律이다.

東醫學的으로 얘기하면 人體와 內外環境間의 協調統一을 가리키는 整體觀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整理해 보면 아래의 圖表와 같다.²⁾

表 1 五行類屬表

| 候 | 星數 | 音 | 味 | 色 | 性 | 化 | 氣 | 時 | 方 | 五行 | 臟 | 腑 | 藏 | 志 | 體 | 官 | 聲 | 液 | 華 | 輪 | 變 |
|---|----|---|---|---|---|---|---|---|---|----|---|----|---|---|---|---|---|---|---|---|---|
| 溫 | 三 | 角 | 酸 | 青 | 溫 | 生 | 風 | 春 | 東 | 木 | 肝 | 膽 | 魂 | 怒 | 筋 | 目 | 呼 | 淚 | 爪 | 風 | 握 |
| 和 | 八 | | | | | | | | | | | | | | | | | | | 輪 | |
| 炎 | 二 | 徵 | 苦 | 赤 | 熱 | 長 | 暑 | 夏 | 南 | 火 | 心 | 小腸 | 神 | 喜 | 脈 | 舌 | 笑 | 汗 | 面 | 血 | 憂 |
| 署 | 七 | | | | | | | | | | | | | | | | | | | 輪 | |

潺 鎮 五 宮 甘 黃 平 化 濕 長 中
 蒸 太 十 商 辛 白 涼 收 燥 秋 西
 清 白 四 之 鹹 黑 寒 藏 寒 冬 北
 切 九 一
 疑 六
 肅 辰 羽

自然方面

脾 胃 意 思 肉 口 歌 涎 昏 肉
 肝 大 魄 憂 皮 鼻 哭 悌 皮 氣
 腎 腸 志 恐 骨 耳 呻 唾 毛 輪
 膀 肱 髮 水
 胱 輪 標

人體方面

其 其 其 其 其 其 其 其 五
 令 政 告 變 化 用 性 德 行
 宣 發 隕 摧 生 動 暄 和 木
 發 散 隕 拉 榮 動 暄 和 火
 鬱 明 燔 拉 蕃 動 暑 顯 火
 蒸 耀 炳 炎 茂 注 化 靜 濡 土
 雲 安 淫 樂 豐 化 靜 濡 土
 雨 靜 潰 動 注 化 靜 濡 土
 霧 勁 蒼 注 肅 滿 堅 固 涼 清 金
 露 肅 落 殺 肅 滿 堅 固 涼 清 金
 閉 流 泳 疑 飲 疑 藏 稟 寒 水
 塞 行 電 雲 疑 堅 藏 稟 寒 水

氣候方面

其 其 其 其 其 其 其 其
 殼 果 蟲 畜 質 物 形 臭
 麥 李 毛 鷄 核 堅 枝 腺
 黍 否 羽 羊 絡 脈 花 焦
 稷 棗 倮 牛 肉 膚 莖 香
 稻 桃 介 馬 殼 外 果 腥
 豆 栗 鱗 避 濡 濡 根 腐
 仁

萬物方面

4. 病因으로서의 六淫中の 火

1) 外感之火(五氣化火)

風寒暑濕燥火 卽 六氣는 自然界의 正常氣候인데 六氣反常則 六淫이라 稱하는데, 外感諸邪가 人體에 侵入時엔 모두 火로 化함으로 外感之火라고도 하며 五氣는 모두 火로 變하기 쉬운 可能性을 가졌는데, 五氣로 因해 질병이 되어가는 過程에서 熱邪亢盛의 表現이 五氣化火라 하는 바, 火는 六淫中 하나면서도 六淫에 不屬함으로 서이다. ^{5,13,28)}

例를 들어보면

風과 火가 雙合해 風火, 風熱 卽 風熱病이 되는데 直觀 角版張 四肢擊摘症을, 傷寒后期에 寒邪가 火로 化해 心煩, 咽病, 不眠, 舌赤症을 暑邪가 火로 變化하는 中暑症에는 煩心, 而赤, 身立, 大汗, 口渴不止症을 燥氣가 火로 變化하거나, 溫熱病后期에 化火해 津液耗灼해 唇舌焦燥, 神昏譫語症을 또는 風寒濕 三氣가 合해서 痺症을 發하는 것등에서 五氣化火의 徵候를 볼 수 있다.

2) 五志化火(內傷之火)

情志活動을 過度興奮所致로 情志가 抑鬱되고 氣机壅滯되어 不暢해 鬱하여 火로 化

하는 바 이는 七情所傷으로 볼 수 있고, 또한 臟腑機能失調時에도 能히 火가 生한다.

具體的인 例를 들어보면

大怒則火起於肝 思慮則火起於心

醉節則火起於脾 悲哀하면 中動하여 肺火가 生하고 房勞則火起於腎하며 이것이 五臟所動之火이다.

5. 病理的 現象으로서의 火

1) 火와 熱

病因이 外感, 內傷 어떤 것이든지 病을 除去하려는 生理的 努力의 表現이 모두 熱로 나타나는데, 무슨 병이든 病人 以는 身熱이 다 있다. 아무리 陽이 弱하더라도 살

아있는 以는 必死의 努力함이 熱로 表示되는데 體內 變動時 그 異狀을 除去하기 위해 平時以는의 強度의 努力을 하게되며 따라서 發熱하게 되며, 疾病엔 반드시 發熱을 同伴하고, 그 發熱의 度로서 疾病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病이 有時엔 身熱하고 熱이 없을 時엔 病이 好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熱이 있는 疾病엔 熱만 풀리면 된다는 結論에 到達한다.^{8,28)}

熱의 形態에 있어서 東醫學에선 여러가지로 分類해서 說明하고 있다. 먼저 흔히 混用해서 쓰고 있는 火와 熱을 굳이 分類해 比較해보면, 아래와 같이 整理할 수 있다.

| | 攻能·形象 | 病氣上 | 臨床上 |
|---|--------|------------------|-------|
| 火 | 熱之體 有形 | 多由內生 | 內因所得者 |
| 熱 | 火之用 無形 | 多屬干外淫所侵如風熱 暑熱·濕熱 | 外因所得者 |

2) 一般의 證狀

內經에선 諸禁鼓慄 如喪神守 皆屬于火亢
諸熱昏瘳皆屬火
諸躁狂越皆屬火

이라 하여 火는 神明을 擾亂케 하여 意識不明이나 狂燥症을 일으키며^{5,13,14,28)}

또 諸逆沖上皆屬于火 火爲陽

이라 하여 全身局所의 顯著한 熱象 卽 壯熱, 喜冷, 惡熱, 面赤目赤, 舌紅黃苔, 腫瘍(化膿性), 紅腫, 腫熱痛, 心煩, 口渴, 脈數, 實救脈 等 症을 火의 徵候로 보며

또 諸嘔吐酸 暴淫下迫 皆屬于熱

諸轉反房 水液運獨 皆屬于熱 이라하여

排出物의 性狀이 粘稠하거나, 排出時 灼熱感, 混濁尿, 膿血便惡臭大便, 急性下痢, 濃鼻涕, 黃色 끈기있는 痰, 肛門熱感 等 症을 火의 證候群으로 보았으며

火氣元氣之賊이라 해서 火病의 證候는 곧 熱로써 나타나 代謝課程을 亢進시키고, 體重減少, 津液消耗, 나중에는 亡陽까지 이르기도 하며 특히 이때 수반되는 汗出은 過多한 水分과 鹽分을 消耗시킴으로서 李東垣은 火氣는 元氣之賊, 穀氣之賊이라고 했으며, 火는 消物, 臟腑氣血을 燒盡시키고, 灼陰, 傷津液하여 舌幹, 少津해지고 口渴冷次, 便硬되기도 한다고 했다.

3) 虛火와 實火
 病理的인 現象으로서 虛火, 實火가 있는

데, 이를 아래와 같이 整理할 수 있다.^{5,13,28)}

| | 病 因 | 病 勢 | 程 | 病 症 | 脈 象 | 治 法 |
|--------|---|-----|-----------|---|------------------|------------|
| 虛 火 | 主로 內傷病 臟腑機能失調 氣血陰陽偏衰 久病失季 精氣虧耗 | 緩慢 | (較)長 | 陰虛症狀, 裏虛熱症, 高熱無 口渴이 되不甚, 潮熱, 盜汗, 不眠, 煩燥, 五心煩熱, 觀紅, 舌紅少津而芩剝苔惑與苔 | 細數 數與力惑 虛大 | 補陰清熱 |
| 實 火 | 主로 外感病 外感諸邪 受邪 外感熱病的 熱盛期 外科急性化膿性疾病 | 急 | (變化) 速 | 顯箸한 火盛症, 高熱煩渴多 汗 躁狂喜冷, 唇焦, 面目紅 赤衄血, 舌紅苔黃燥 尿短 澀, 祕結 | 實權 洪大而權 實 | 清熱浮火 鮮妻 |

以上과 같이 虛火·實火를 大體的으로 大別해 볼 수 있으며 특히 實火보다 虛火의 概念은 複雜해서 難解한 點이 많다. 이에 虛火에 對해서 細分해서 說明해보면

4) 虛火之病源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²⁸⁾

하나는 陰虛해서 發熱하는 경우인데 이는 眞陰虧損해서 水不制火함으로 일어나며 또 하나는 陽虛해서 發熱하는 경우인데 이는 元陽敗竭해서 火不放源함으로 일어나고 宏候를 別해 보면

陰虛發熱：虛煩不眠觀紅耳鳴盜汗潮熱 五
心煩熱 咳喉帶血 舌紅絳苔少
脈細數 惑虛數

陽虛發熱：觀面潮紅 上熱下寒의 載陽症(爲
無根之火)

浮陽外越 外熱內寒(爲格陽之
火)

陽陶于下 下熱中寒(爲失位之
火)

으로 整理할 수 있는데 이 虛火는 體質裏弱해서 眞陰虧損 或은 眞陽裏竭해 惹起되는 機能低下에서 發生하는 虛性亢奮的인 것을 말한다.

5) 또 虛火의 外症을 더 細密히 區分해 四大別해보면

1. 陽戴干上 而見干頭面咽喉之間者 此其上雖熱而下則寒 所謂無根火也.
2. 陽學干外 而發干皮膚肌肉之間者 此其外雖熱而內則寒 所謂格陽之火也.
3. 陽皆干下 而見干便之弱二陰之間者 此其下雖熱而中則寒 所謂失位之火也.
4. 陽亢乘陰 而見干精血髓液之間者 此其金水敗而鉛汞干 所謂陽虛之火也.

등으로 四分할 수 있으나, 크게는 亦是, 陰虛와 陽虛로 나눌 수 있다. 陰虛之火는 4번째의 金水敗한 것이고, 陽虛之火는 1, 2, 3번째의 것들로 治法에 있어선 陰虛火盛인 경우엔 壯水해야 하며 甘涼케 해야 하며 辛熱

은 不當하며 陽虛 發熱의 경우엔 마땅히 益火해야 하며 溫熱法을 써야 하는데 清涼藥은 不當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火란 病理的인 現象으로 各種機能이 過度하게 亢進되는 狀態를 말하는데, 實火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虛火의 경우 東醫學的인 特徵이 나타나는데, 現代西洋醫學에선 發熱이나 熱이란 반드시 體溫計上 나타나고, 上昇하는 狀態를 말하나 이는 實火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提起되지 않으나 지금까지 述한 虛火의 경우에는 測定할 길이 없다.

東醫學에선 火란 實火의 경우는 勿論이고 이런 計擘上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이 取扱한다. 예를 들어 患者가 體溫計上 熱은 나타나지 않아도 스스로 熱이 있다고 主張하건, 여러가지의 熱感을 느낀다거나, 또 他意的 症狀으로 熱狀이라면 亦是 熱이 있다고 본다.

嚴格한 意味에서 熱이라고 보기보담 熱感이라는 말이 더 正確한 表現일 것이다.

끝으로 病理的인 火를 整理해보면

內傷性的 消耗性慢性疾患에서 多顯하는 陰虛內熱症인 虛火와 外感病的 急性熱性疾患에서 많이 볼 수 있는 淫邪亢盛症인 突火로 大分할 수 있다 하겠다.

6) 六氣로서의 火^{2,3,9,11,13,14)}

地球에서 形成되고 있는 物質은 木火土金水가 있는데 地球 公自轉인 23.5°傾斜에 의한 太陽복사열의 日較差에 따라 陽氣와 陰氣의 多와 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內經엔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라고 말했다. 그러한 관계로 陰을 三等級으로

區分하고 陽을 三等級한 것이 三陰三陽이다. 三陰의 名稱은 厥陰, 少陰, 太陰인데 또는 厥陰은 一陰, 少陰은 二陰, 太陰은 三陰이라고도 稱하며, 三陽의 名稱은 少陽, 陽陰 太陽인데 少陽은 一陽, 陽明은 二陽, 太陽은 三陽이라고도 한다.⁹⁾

이러한 三陰과 三陽의 氣化作用에 의해 木의 物質에서 風, 化의 物質에서 溫과 暑, 土의 物質에서 溫, 金의 物質에서 燥, 水의 物質에서 寒이란 氣化的屬性이 周期的으로 旺하고 裏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六氣라고 稱한다.

內經에는 風寒暑濕燥火는 天의 陰陽이므로 三陰과 三陽이 이것을 위로 받들고 있고 木火土金水는 地의 陰陽으로 生長化收藏의 이것을 아래서 應하고 있다 했다. 다시 말하면 寒度·濕度·燥度등은 大氣中の 陰陽인데 이것이 三陰과 三陽의 多少差異에 의해 上에서 調節되고 있고 木火土金水는 地球에 존재하고 있는 物質인데 그 氣化作用인 風寒暑濕等の 強度의 높고 낮은데 의하여 春은 主하고 夏는 長, 長夏(六月)는 化, 秋는 收, 冬은 藏하는 結果가 아래서 相應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君火는 太陽熱의 복사이며 相火는 地球에서 反射되는 熱을 못한 것이고 木火土金水는 地球中에 存在한 物質인데 賣道와 赤道 23.5° 傾斜에 의한 지구 公轉中 太陽熱의 복사차이에 따라 三陰三陽이 생기고, 陰과 陽의 秒에 의해 木의 氣化인 風度君火의 氣化인 濕度 相火의 氣化인 熱度 土의 氣化인 溫度 金의 氣化인 燥度 水의 氣化인 寒度が 周期的으로 높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圖表참

조)

三陰三陽 五行六氣 年中配合表(陰歷)

| | | | | | | |
|----------|--------|--------|--------|-------|---------|---------|
| 三陰三陽의 名稱 | 厥陰 | 少陰 | 少陽 | 太陰 | 陽明 | 太陽 |
| 六氣의 名稱 | 風 | 君火 | 相火(署) | 濕 | 燥 | 寒 |
| 五行의 順序 | 初之氣 | 二之氣 | 三之氣 | 四之氣 | 五之氣 | 六之氣 |
| 四季節의 月數 | 正月 | 3月 | 5月 | 7月 | 9月 | 11月 |
| 節候名稱 | 春分(2月) | 小滿(4月) | 大暑(6月) | 秋分(月) | 小寒(10月) | 大寒(12月) |

尹³⁾은 六節에서 論하기를 空間을 上下左右前後의 六次元으로 보고 이 六次元方位의 要約에 따라 本氣(力)의 發顯이 六波로 變化하여 風寒濕燥火의 六氣에너지를 發生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것을 陰陽의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으로 六節하는데 形氣關係에서 보면 太陽은 陽이 老衰한 것이고 陽陰은 陽이 長成한 것이요 少陽은 陽이 初生한 것이고, 太陰은 陰이 成熟한 것이요, 少陰은 陰이 始生한 것이고, 厥陰은 陰은 衰盡한 것이다.

또 陽進陰退의 理에 따라 보면

太陽은 陽이 極進한 것이다. 陽이 消盡해 自體는 陰만이 있어 寒現象 일으키고 太陰은 陰이 極進하여 陰이 太盛하므로 成形의 濕의 現象이 일어나고 少陽은 陽의 初生이라 에너지의 生成이 加速的으로 旺盛해 自體는 火氣盛한 火의 現象을 일으키며

少陰은 陰이 아직 微少하여 自體는 陽旺한 熱이 되고

陽陰은 少陽보다 進展해 加速發顯이 收縮되고 旺盛한 陽이 次次로 수축되는 現象이

라 乾燥의 現象을 나타내며

厥陰은 陰이 已盡하여 動하는 것이니 自體는 陽을 生할 단계라 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은 寒, 太陰은 濕, 少陽은 火, 少陰은 熱, 陽陰은 燥, 厥陰은 風으로 定해지고 五行으로 나누면 火와 熱은 五行中の 火로 合一되고 寒은 水, 濕은 土, 燥는 金, 風은 木으로 分類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氣象을 三陰三陽 六氣에너지로 分類했으나 實狀인 卽 寒熱溫度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熱의 에너지가 主動이 되어 風寒濕燥火가 나타난 것이다. 根本은 運行이나 熱이 君主라 같이 主動세력이 되는 것이라 하여 熱을 君主라 하고, 火는 熱의 標化한 것이니 熱에 從屬하는 것이라 하여 相化라고 한다.

따라서 三陰三陽은 하나의 標象으로 標가 되고 六氣는 現象發現의 本元으로 本氣가 된다.

韓¹¹⁾은 六氣論에서 論하길, 六氣도 五行의 경우와 같이 그 基本은 木火土金水에 있

다. 그러므로 그 性質에 있어서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六氣와 五運은 變化하는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구는 그 軸이 23.5° 傾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寅申相火라는 새로운 불이(火) 하나 더 불어나게 되어서 「五運+相火」=六氣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寅申相火가 불어남으로써 宇宙운동에 있어서 地支에서는 2개의 火가 作用하게 되었다. 그래서 人間인 小宇宙와 天地인 大宇宙와의 사이에는 壽命과 精神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람은 天氣所生이 못되고 地氣所生이므로 陰陽이 均衡되지 못해서 이런 結果가 생하는데 이는 地支(六氣)에는 寅申相火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陽의 過亢을 招來하기 때문이다. 卽 六氣는 木火相火의 3個陽과 金水二個의 陰과 申인바의 土로서 成立되었으므로 陽의 過亢을 免할 수 없게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少陰(稱)君火에 대해서 論하길, 君火는 少陰속에서 자라는 火다. 君이란 뜻은 主動力을 마음대로 驅使할 수 있는 實力있는 位가 바로 君位이다. 그런데 이것을 支地에서 살펴보면 君火는 子位에서 午位에 이르는 사이의 火를 稱한 것이다. 子는 本是 水요, 午는 火다. 그런즉 子에서 午에 이르는 火는 實力은 充分하나 아직 그 猛威를 發하지 못하는 火다. 이는 陰中の 火 즉 陰性이 아직 많이 作用하는 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象이 바로 君火의 象이요 또한 少陰의 象인즉 이것은 모두 已亥서 계승하여서 活動하는 모습을 表示한 개념인 것

이다. 그러므로 子午火는 子에서 出發할때는 그 힘이 强하지만 午에 와서 火로서의 外形을 갖추게 되면 힘은 衰弱해진다.

少陽相火에서는 相火는 寅에서 始作하여서 君火와 濕土를 거쳐서 申에 이름으로써 完成되는 것이다. 君火는 實力은 있지만 外勢는 弱했는데 相火는 實力은 弱化되었지만 外勢는 가장 旺盛한 火로 變하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인즉 少陽은 綜合의 最初의 단계이므로 少字를 놓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陽의 創造過程을 標準으로 하고 少陽이라 했다.

다음 相火한 것은 君火를 도와주는 火란 뜻이다.

君火를 돕는다는 말은 君火는 發散을 爲主로 하는 火인즉 綜合만이 그의 補助가 되므로 天道는 相火로서 君火의 보조作用을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人君을 돕는 正丞(相)의 역할이 君의 放蕩을 諫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즉 少陽과 相火라는 개념은 바로 寅申의 補助개념인 것이다. 寅申은 寅에서 申사이에 이루어져 少陽作用과 相火作用을 하기위한 存在이다.

다음 六氣와 人體와의 相關性에 對해서 論해 보자.^{2,9)} 素門 六節藏象論에서는 心은 通於土氣라 하여 人身五臟에 風寒暑濕燥의 氣가 있음을 말했고, 臭樞 本藏篇에는

五臟者 所以參天地 副陰陽 而運四時 化五節者 라고 하여 人身의 五臟機能 및 作用이 自然界의 氣화와 關聯이 있음을 말했으며 素門 寶命全形篇에 사람은 天地의 氣로 生하고 四時의 法으로 成長한다고 하여 天人 統一體를 論했다.

六氣라 五臟의 分配는 肺는 燥, 心은 暑, 肝은 風, 脾는 濕, 腎은 寒이고, 作用에 있어서는 肺는 燥로 肅降作用을 하고, 心은 暑로 薰蒸作用을 肝은 風으로 條達作用을 하고 脾는 濕으로 濡潤作用을 하며 腎은 寒으로 收斂作用을 한다.

또 素門 五運行大論에서

風(肝)寒(腎)은 在下하고 燥(肺)熱(心)은 在上하며 濕氣는 居中하고 大는 홀로 그 사이를 流行한다 하여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見之 火以溫之라 했다.

以上을 綜合 考察해보면 似內的 五藏機能을 自然界의 五氣와 結符시켜 同一한 作用으로 서술되고 있고, 人間과 自然界는 하나의 同一體로서 氣機가 相應하는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自然界의 氣候와 環境의 變化는 時時刻刻으로 人體의 本氣機活動을 영향을 미친다.

III. 考 察

大韓辭典이나 한국國語辭典에는 火病이란 어휘가 나오는 데 거기에선, 火病은 다 鬱火病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鬱火는 속이 답답하여 나는 화 또는 속이 답답하여 나는 심화로 풀이하고 있고, 鬱火病은^{7,22)} 울화로 인해 나는 病으로 기재되어 있다.

東洋圈의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火病과 類似的한 疾患名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現在로서 그 나라의 辭典엔 火病이란 用語가 보이지 않고 단지 韓國에만 있는 말이고, 主로 火即 적개심이는 病, 나아가서는 心因性疾患

이라는 뜻으로, 언제부터가 우리나라에서만 使用해오고 있는 一般的인 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火病에 對해서 韓國精神界에서 研究한 資料가 많이 있는데 이를 參考해보면, 火病의 誘發因子들은 모두 心理的 主로 家族內 問題와 가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婦人患者에선 男便의 술·도박·外道 等과 媳宅과의 갈등, 子女들의 속씩임 等 억압된 忿怒 等으로 보고 있으나 배우자와 子女들의 死別, 가난과 生活苦, 財產上의 損失 等은 忿怒感情보다도 喪失에 의한 憂鬱에 가깝다고 보인다.^{17,26)}

그래서 Lin¹⁶⁾은 火病이 우울에 관련된 症候群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했으며 이런 複合的인 感情은 忿怒의 感情과 같이 恨의 感情과 類似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고 했다.

이²⁶⁾는 火病에 對한 考察에서 憂鬱症과 不安症 또는 이들의 混合病이라고 보았으며, 화는 화가 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그 結果로 생긴 抑壓된 忿怒가 그 力動的原因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火病의 證狀에 있어서는^{17,18,19,26)}

身體證狀으로는 頭痛과 얼굴의 熱氣, 心悸亢進, 消化障礙, 가슴에 바침, 목 가슴의 덩어리, 답답함, 口渴, 眩暈 等이 가장 많은 證狀들이고¹⁾ 精神證狀으로는 憂鬱, 不安, 神經質, 짜증, nervousness 등이 가장 많으며 其他 죽고 싶다, 사는 재미가 없다, 意慾이 없다, 虛無하다, 잘 놀란다, 火가 暴發한다 等이었다. 이들 證狀은 憂鬱症·凡不安障礙·恐慌·身體化障礙 等の 證狀을

나타내고 있다.

即 火病의 證狀은 心因性 乃至 反應性으로 神經證的 障礙와 身體化障礙 等に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火病의 過程을 論하매 이²⁶⁾는 火病 患者는 火亂 感情을 處理하는 方法으로서는 抑制의 心理機轉만을 使用하고 있으며, 火病의 經過는 急性沖擊을 받은 後 即 沖擊期—葛藤期—諦念期—證狀期의 經路를 밟아 進行되는데 火亂 感情을 身體로 投射하는 身體化 傾響이 顯著했다. 火가 난 原因을 超自然的인 것에 돌리므로서 쉽게 諦念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火病의 初期에는 不安症이 많고 進行됨에 따라 憂查證이 많다고 하였다.

火病과 東醫學에서의 火와의 關聯性에 對해선 민¹⁹⁾ 등은 火는 火내는 것 뿐만 아니라 忿怒 等으로 말할 수 있겠으나 不安·抑鬱·근심·걱정·憂鬱·落談·失望·怨望等 너무 다양해 感情 그 自體 全體를 包含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치밀어 오른다, 煩熱感이 있다 等の 身體證狀까지도 同時에 包含하는 데, 身體表現이 상당히 stereotype 하게 나타나 목·가슴·얼굴·눈 등에서 열이 난다, 속이 끓는다 또는 입이 탄다. 무엇이 치밀어 오른다. 목에 덩어리가 있다. 가슴이 멎힌 듯 답답하다 等の 證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불이나 연기의 屬性과 象徴的 關聯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東醫學의 火의 概念에서 온 것 같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疾病觀에는 求도 없이 東醫學의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으며, 火病의 證候群들이 속에 불난다, 치

민다 等の 上尖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東醫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心火와 心火內熾 等과 아주 類似하며, 證狀들이 불의 性質과 關係가 있음으로 火病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東醫學의 火의 概念中 生理的인 火의 概念과 가장 類似하다고 했다.^{17,18,19)}

東醫學에서 火의 概念을 內經에서는 水는 陰이고 火는 陽이라고 하고 水火者陰陽之兆徵이라 하여, 陰陽面에서 火를 論하고 火를 陰性으로 보며 動的인 概念으로 보았으며, 王永은 壯火 少火로 生理的 病理的인 面에서 火를 다루었고 人火龍火라 하여 病理的인 觀點에서 虛實을 얘기했다.²¹⁾

宋代 許叔微·嚴用和는 腎에 眞火·眞元이 있다 했고, 劉河間은 病理的인 火를 論함에 있어서, 모든 疾病中 火와 熱이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된다고 하여 主火論을 主張했고, 李東垣은 病理的인 面의 陰火 即 虛火 理論을 提示하여 治方도 補中益氣湯을 多用했다.

朱震亨은 相火를 生理的인 面과 相火妄動에 依한 病理的인 面의 火로서 論하고 陽有餘陰不足에 着眼해서 滋陰降火의 治法을 主張하였다.

다음 水火와 가장 關係깊은 藏器 即 心腎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心은 火이고 腎은 水란 性質을 가졌는데, 모든 運動은 陰陽運動이고 運動은 升降運動이니 生理가 正常的으로 되기 爲해선 水升火降·水火相濟 即 心腎相交 觀點에서 心腎을 얘기할 수 있으며^{10,11,20)} 五行에서는 火는 分散을 爲主로 하는 氣運이며, 또 分裂과 長茂, 時로서의

夏節, 方의 南方, 上下로서의 上, 作用으로서의 上升作用, 性은 熱, 色은 赤, 候는 炎署, 志는 喜, 聲은 笑, 化는 蕃茂 그 變은 炎燦, 其令은 鬱蒸 等으로 特徵지을 수가 있다.

病因으로서의 火는 外感諸邪는 모두 人體에 侵入해 火로 化함으로 모두 熱로 變하기 쉬운 可能性을 가졌고, 五志도 化火해서 七情所傷時에도 火가 藏腑에서 生한다고 하였다.

다음 病理的인 火의 概念에서 火의 特徵이 多樣하게 펼쳐지는데, 火는 神明를 擾亂케 하여 意識不明·狂燥케 하며 모든 冲上하는 것은 火로 보아 諸逆冲上皆屬火라 했다.

또 排出物의 粘燥함, 排出時 灼熱感, 混濁尿, 膿血便, 黃痰 等を 火의 證候로 보았으며, 또 火는 元氣의 賊이라 하여 元氣와 津液을 耗散시키는 元兇으로 보았다.

또 虛火와 實火를 設定하여 慢性 消耗性 疾患에서 볼 수 있는 陰虛證狀과 外感熱病에서 多顯하는 火盛의 實火證으로 區分하였으며 虛火는 陰虛에서 뿐만 아니라 陽虛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여러 觀點에서 病理的인 火를 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結局 火란 病理的 現象으로 各種機能이 過度하게 亢進된 狀態를 病理的인 火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虛火에 있어선 體溫計上의 熱만을 理解하는 西洋醫學界에선 多少 認知하기 困難한 事項이나 이 또한 東醫學의 特徵이 될 수 있다 하겠다.

六氣에서 火는 五行의 火概念과 별 차이가 없으나 添加된 것은 君火·相火의 概念

으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社會에서 얘기하고 있는 火病의 火의 概念과 東醫學에서 論하고 있는 火概念사이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不安·憂鬱·神經的 障礙·身體化 障礙 等の 精神的인 神經學의 면에서의 火를 생각했다기 보단 東醫學에서는 火의 性이 上尖·上升作用, 季節에서 夏, 方向의 南方 等の 火의 本性和 結符시켜 關聯性을 導出하게 된 데에서 火病이란 用語의 出現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證狀에 있어서도 火의 性質과도 같이 치밀어 오른다 等の 上尖하는 證狀으로 發顯되므로 火病의 名稱이 생겨났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오랜 傳統과 歷史를 가진 民族이라면, 그 民族特有的 國民性和 文化的 바탕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精神病觀에서도 韓國人은 韓國人의^{15,22,23,24)} 精神醫學을 必要로 한다. 西洋의 風土위에서 세워진 疾患名에서 火病이란 用語가 없다보니 이러한 研究가 行해졌지만 相異한 環境에서 形成된 西洋精神醫學觀을 그대로 우리에게 適用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는 우리가 만든 病名위에서 西洋의 病名을 가져오는 土臺를 세워야 精神醫學界 뿐만 아니라 國民 主體性的 涵養을 가져올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1. 지금까지 韓國精神醫學界에서 研究 發表된 火病의 誘發因子들은 모두 心理的인 것으로 主로 家族內 問題로 나타나

고 있다. 男性에 비해 特히 婦人에게 많은데, 男便·媳宅식구·子女들의 속 썩임 등으로 惹起된 抑壓된 忿怒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死別, 財産의 損失, 가난과 生活苦 등으로 보았다.

2. 病의 證狀으로는 急性冲擊을 받은 후 冲擊期—葛藤期—諦念期—證狀期の 經路를 밟아 進行되는 데 火病 感情을 身體로 投射하는 身體化 傾向이 顯著했다. 火病初期엔 不安症이 많고 進行됨에 따라 憂鬱症이 많았으며 症狀은 多樣해 憂鬱症, 凡 不安障碍, 恐慌, 身體化障碍 등으로 보았다.
3. 火病과 東醫學에서의 火와 相關性을 찾아보면 火性은 上尖·上升作用을 하며 分散을 爲主로 하는 氣運이므로 卽動的인 陽性을 뜻함으로 해서 火病證候들이 火性과 類似하게 치밀어 오는 上向 證候와 相關性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火病證候가 憂鬱, 不安障碍 等の 憂鬱症이나 限의 感情의 證候도 있음으로 火病 證候群들이 全部 火性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思料된다.
4. 五臟中 火臟인 心臟과의 相關性에서 動醫學에선 心臟神이라 하여 心病이라면 神病으로 認識되어지고 있고, 火病證候가 憂鬱症 같은 神病가 類似한 證候를 볼 수 있음으로서 心病—神病—火病으로 相關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金相孝：東醫神經精神學, 서울, 杏林出版, 1980.
2. 金完熙·崔遠永：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p. 33, 79, 308
3. 尹吉榮：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p. 286
4. 尹暢烈：干支와 運氣,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pp. 61~70
5. 李京燮·金珍泰：心系內科學, 慶州, 東國大學校, 1987, pp. 122~140
6. 李正來：修正東洋醫學原理, 서울 은누리출판사, 1988.
7. 李熙昇：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2.
8. 趙憲泳：東洋醫學叢書, 서울 成輔社, 1978. p. 20.
9. 蔡仁植：韓方臨床學, 서울 大星出版, 1987 pp. 10~17, 30~37.
10. 韓圭性：洋學原理講話, 서울 史草, 1957.
11. 韓東錫：宇宙變化的 原理, 서울 杏林版, 1982, pp. 28~62, 89~107.
12. 黃義完：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 1987.
13. 許 浚：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p. 94, 140, 417~427.
14. 洪元植：精機 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연구원, 1981.
15. 金光日外：韓國民間精神醫學(I), 神經精神醫學 Vol. 11, No. 2, 1972.
16. Lin Kihwa-Byung : A Korean Culture-Bound Syndrome Am. J. Psychiatry, 140 : 105-107, 1983.
17. 민성길外：火病에 對한 臨床的 研究,

- 大韓醫學協會誌, 제30권 제2호, 1987.
18. " : 보길도에서의 火病에 對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Vol.25, No.3, 1986.
 19. " : 火病에 對한 診斷的 研究, 大韓醫學協會誌, 제29권 제6호.
 20. 朴玉用·申致圭: 陰陽運動과 六氣의 承利關係에 對한 考察, 東醫生理學會, Vol.3, No.2, 1988.
 21. 禹元洪外二: 火의 概念에 對한 宋代的 考察, 大韓醫學會, 1986.4.
 22. 李東植: 火病考, 對話 제3권 제3호, 1986.
 23. 李符永: 韓國民間의 精神病과 그 治療 (II), 神經精神醫學 Vol.9, No.1, 1970.
 24. 李符永: 東醫寶鑑에 나타난 心身關係, 神經精神醫學, Vol.6, No.1, 1977.
 25. 李相日: 火의 개념에 對한 東洋醫學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78.
 26. 李時炯: 火病에 대한 研究, 서울 高醫 제1권 제2호, 고려병원, 1977. 2.
 27. 北京中醫學院: 內經選讀, 北京, 上海科學技術版, 1981. pp.14~15.
 28. 楊醫並編: 中醫學問答 上册, 北京, 人民出版, 1985. p.51
 29. 王 永: 黃帝內經素門, 台灣, 中華書局印, pp.722~728.
 30. 劉河問: 劉河問之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253~267, 287, 297, 306, 307.
 31. 李東垣外五: 東垣十五年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p.27, 34, 35, 100, 105, 106.
 32.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pp.43~46.